

'96 학술 발표회 경과 보고

權 五 憲

(우리 학회 학술 담당 부회장)

신록이 한창인 5월 18일(土)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개회식이 있었다.

학술위원회 간사인 윤병만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개회식은 간단한 국민의례에 이어 본인의 경과보고, 金桂鎬 회장님의 인사, 관동대 백영철 총장님의 진솔한 환영사(교무처장 대독)와 육운수 교수님의 관동대학교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11시부터 50분간 화란 IHE Sabenije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IHE 소개와 한국과의 교류방안에 대한 제의와 물·환경 관리에 대한 강연 및 질의 토의가 진지하게 있었다.

학술발표회의 그간 경과를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3년 8월 5일 경기공고에서 수문학, 관개, 배수, 기상학 등 관련분야 수공학 발표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문학 발전을 목적으로, 年 2회 방학 중 중간 또는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갖도록 합의하였다. 당시의 모임은 우리 학회 창립 이전으로서 기술정보 교류, 연수의 목적이 컸었다고 할 수 있다.

제1회(1964.1.21)는 서울대 工大에서 13명 참석,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제2회(1964.8) 동아대, 제3회(1965.1) 청주대, 제4회(1965.8) 서울대 농대, 제5회(1966.1) 연세대, 제6회(1966.7) 전남대, 제7회(1967.1) 서울대 공대, 제8회(1967.7) 부산대, 제9회(1968.1) 건국대의 순으로 실시하다가 제10회(1968.7)

조선대에서 年 1회 여름방학 중 발표회를 갖기로 합의하여 제11회(1969.8) 동아대, 제12회(1970.7) 인하대에서 개최하였고, 이듬해 한국수문협회를 한국수문학회로 개명(1971.5.29)하였음이 특기할 사항이다.

제13회(1971.7) 영남대, 제14회(1972.7) 전북대, 제15회(1973.7) 한양대, 제16회(1974.8) 동아대에 이어 제17회(1975.8) 동국대 개최 때부터 논문 초록집 발간을 시작하였고, 이때 수공학 발표회를 학회에 병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후 제18회(1976.7) 전남대에서 2개 주제의 세미나 병행 실시, 제19회(1977.7) 울산대에서 水理學과 水文學 연수회 실시 등으로 연구성과 발표와 더불어 연수기능이 다시 보완되었다.

제20회(1978.7) 강원대에서 水工 婦人會를 발족하였고 제21회(1979.7) 경상대 개최시에는 토목학회, 수문학회, 농공학회, 기상학회의 공동 후원으로 2회 연수회를 가졌다.

제22회(1980.8) 충북대에서 2회 연수회를 갖고 수공발표회를 한국수문학회로 병입토록 합의하여 한국수문학회 학술발표회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3회(1981.8) 육사, 제24회(1982.7) 중앙대, 제25회(1983.7) 경북대, 제26회(1984.7) 서울시립대에 이어 제27회(1985.7) 충남대 개최시에는 논문 증가로 3개 분과로 분리 발표가

시작되었으며, 제28회(1986.7) 경희대, 제29회(1987.7) 부산대, 제30회(1988.7) 성균관대, 제31회(1989.7) 계명대, 제32회(1990.7) 인천대에 이어 제33회(1991.7) 건설기술연구원, 제34회(1992.7) 한국수자원연구소에서 개최되어 학교외 연구소가 참여, 주관하여 발표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제35회(1993.7) 고려대 개최, 제36회(1994.7) 여수수산대 개최시 더운 날씨 관계로 4, 5월에 개최토록 합의하였다.

한국수문학회가 한국수자원학회로 개명(1995.2.18)되고 총회에서는 발표회를 年度로 표시토록 결정하였다. '95 발표회(1995.5) 수원대에서 시사성 있는 주제나 실무진의 참여를 촉진토록 특별분과 운영이 시작되어 이때는 가뭄 특별분과를 두었다.

'96 발표회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설악산 자락에 자리잡은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양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속초 비행장의 기상관계로 모든 비행기 편이 결항되어 참석하지 못한 회원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103편 논문에 400여명이 등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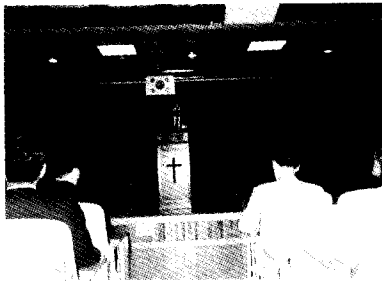
특별분과의 11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회를 가

진 후 종합토의에서는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과 좌장의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 및 평가가 있었고, 발표 논문의 양과 더불어 질적 향상 방안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주요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결론은 차기 이사회에 부의토록 결의하였다.

- 논문 발표 시간 할당을 1.5 2.0일(금, 토)로 늘리는 안
 - 대학원 학생 발표 시간대를 주된 발표와 분리하는 방안
 - 발표 장소를 순회하지 않고 일정 지역으로 고정하는 안
 - 논문의 질적 평가 방안(프로시딩에는 제출된 논문, 보고문을 모두 수록하고 발표논문을 선정, 제한하는 안도 제기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후에야 '97 발표회 장소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리셉션은 아름다운 영랑호반에서 뷔페를 즐기며 가졌다. 이와 같은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총장님, 교무처장님과 특히 육운수 교수, 김규한 교수 등 관동대학교 토목과와 명지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96. 5.18(토)

장소 : 관동대학교 안양캠퍼스

개 회 사	
논문발표	리 셉 션

